

150여명 동창들, 단단한 결속력 뽐내

전주교대 5회 졸업생, 졸업 50주년 기념식

1968년 2월에 졸업한 전주교육대학교 5회 졸업생들이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아 최근 전주 바울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던 15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타 학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결속력을 뽐냈다.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식전행사와 본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점심 식사 후에 2부 행사로 이어졌다. 식전 행사에서는 관소리, 색소폰, 오카리나 연주 그리고 소프라노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회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본행사인 기념식에서는 5회동창회장의 기념사, 인사말 소개, 기념품 증정과 더불어 모교발전기금 및 동창회 후원금 기탁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동창회 50주년 기념문집 <동행 그 길목에서>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기념품도 증정하며 풍성한 잔치를 이어갔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우영 총장은 "모교에 대한 자긍심으로 언제나 모교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전주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동문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1968년 2월에 졸업한 전주교육대학교 5회 졸업생들이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아 최근 전주 바울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고창 POLICE 아카데미 '소리아 놀자' 특강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25일 오전 '고창 POLICE 아카데미'에서 국악예술단 '소리연' 대표 최영인 강사를 초청하여 '소리아 놀자'라는 주제로 실명하는 특강을 벌였다.

최영인 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임새 강의로 시작해 끝까지 함께 어울려 부를 수 있는 판소리 한마당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를 청취한 경찰관들은 "판소리의 고장인 고창이니만큼 판소리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실명하는 우리소리를 앞으로 더 사랑해야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소방서, 내소사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부안소방서가 관내 문화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중한 문화재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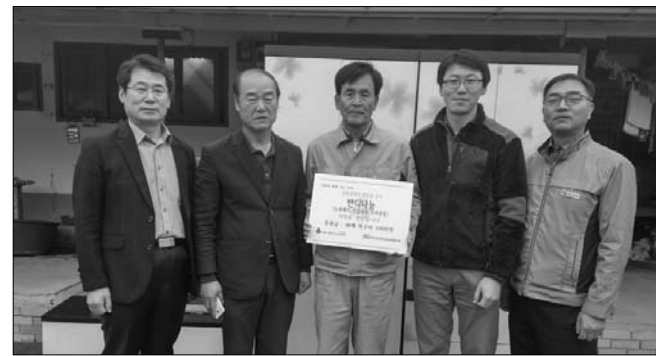
이를 위해 부안소방서는 24일 오후 2시 내소사에서 소방공무원, 자체소방대, 유관기관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소방 훈련을 가졌다.

이날 합동소방훈련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대책의 하나로 관광객 실화로 대응보전 주위에 불이 확대된 상황을 부여하고, 문화재 화재 대응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유관기관 훈련은 ▲자위소방대 초기 소화활동 및 인명대피 훈련 ▲중요문화재(보물4점) 반출훈련 ▲소방차 방수포 훈련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나선 경준모 현장지휘팀장은 "목조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에 확산하므로 자체소방대의 초기대응능력이 중요하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자체소방대의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무주군 기관·단체들, 화재피해 주민 이웃사랑 실천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주군자원봉사센터, 한수원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이명주)가 25일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화재 피해 주민 박모씨(64)의 집을 복구했다.

장애타기 이대를 돌보며 살고 있는 박모씨의 집에 화재가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디나눔 후원금으로 화재복구비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배 시공을 지원했으며, 한수원 무주양수발전소에서는 생활가전제품과(옷장,TV) 등을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박모씨는 "불의의 화재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으나 무주군정, 기업, 사회단체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어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정비하여 희망 속에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웃에게 경제적 도움은 못 주어도 봉사료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 보훈단체, 평화통일 염원 호국원 참배

임실군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25일 임실군 보훈단체(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참여하는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 보훈단체 회원들로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 장의로운 대한민국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 진행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시 성덕면, 청소년 선도활동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25일 청소년 선도위원 및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선도활동은 성덕초등학교, 지평선중·고등학교, 관내중심지역 위주로 가두캠페인을 하면서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덕면 청소년선도위원회 임용혁 회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성덕면은 지평선프로미 순찰대 편성,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의 운동 전개로 청소년 비행·탈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 흥남동 적십자봉사회, '효사랑 빨래방' 봉사활동

군산시 흥남동(동장 김영섭)은 25일 적십자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회장 김봉래)와 연계해 관내 취약계층 80여 가구의 겨우내 쌓여있던 이불을 깨끗이 세탁하는 '새봄맞이 효(孝)사랑 빨래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동참한 흥남동 복지봉사단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의 이불을 직접 수거하고, 적십자봉사회 회원 20여명이 이불을 깨끗이 세탁 후 건조시켜 다시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빨래 봉사활동을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어떻게 겨우이불을 세탁해야 할지 걱정했는데 깨끗하게 빨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섭 흥남동장은 "앞으로도 이불빨래 서비스 등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챙기는 세심한 복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